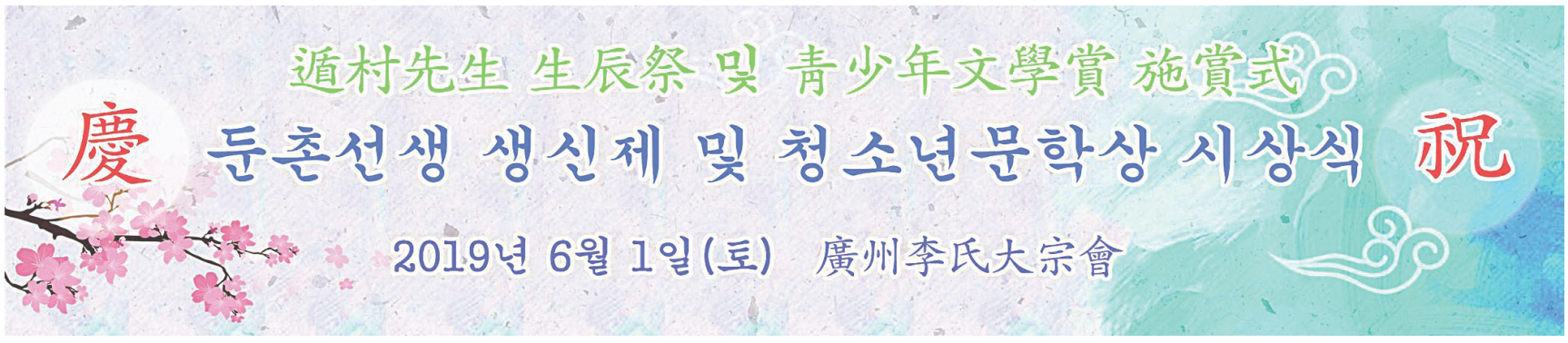
2019년 6월호 (제348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 촌 선 조 정 훈

讀書可以 悅親心 —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 서 가 이 열 친 심)
勉爾孜孜 惜寸陰 —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 이 자 자 석 촌 음)
老矣無能 徒自悔 —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 의 무 능 도 자 회)
頭邊歲月 苦駸駸 —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 변 세 월 고 침 침)

遺子滿籯金 —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 자 만 영 금)
不如敎一經 —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 여 교 일 경)
此言雖淡薄 —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 언 수 담 박)
爲爾告丁寧 —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 이 고 정 녕)



둔촌선생 탄신 693주년 생신제 성대히 거행

대종회에서는 2019년 6월1일(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둔촌선조님 재실(追慕齋)에서 둔촌선생 탄신 693주년 생신제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옥재 도유사를 비롯한 집행부, 각 지파 도유사, 대종회 임원 및 대의원과 단체장, 등 300여 명의 종인과 내 · 외빈들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생신제는 초헌관에 옥재 대종회 도유사, 아헌관에는 병대 신임 충희공종회 도유사, 종언관에는 신임 경래 문경공파종회 도유사가 헌작하였으며, 축관에는 종성 대종회 부도유사, 집사에는 경기남부 청장년회 승재 · 문재 · 무환 · 종목 회원들이 맡아 석재 문화유사의 집례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걸재 총무유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 내 · 외빈 소개, 도유사 인사,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자체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대신하여 임승민 중원구청장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대독해 주었다.

이어서 종회발전에 숨은 공을 세운 형래 현종과 용중 문숙공파 도유사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고, 모범종인 11인, 효열인 9인에 대한 표창과 특별장학생 18인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참석 종인들로부터 축하의 박수 속에 시상되었다.

생신제 인사문

안녕하십니까 ? 대종회 도유사입니다.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반을 보내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둔촌선조님께서 태어나신지 693주년이 되는 생신제를 맞아 경향각지에서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문중 어르신과 종인 여러분, 그리고 휴일임에도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둔촌선조님께서는 고려 27代 충숙왕 14년(1327년)에 출생하시어 32대 우왕 13년(1387년) 향년 61세로 서거하셨습니다.

선조님께서는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태어나시어 국가에는 충절을, 불의한 권력에는 용기와 직언을, 가정에서는 효성과 교육을, 친구들과는 신의와 우정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분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늘의 문중 번영에 커다란 길잡이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가 선조님의 유덕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대종회에서는 본 생신제인 오늘 개최하는 "둔촌청소년문학상"시상식을 시작으로, 한국작가협회에서는 전국 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둔촌이집문학상" 시상식을, 9월에 강동문화원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8회 둔촌백일장" 시상식을, 성남문화원에서는 시민과 우리 문중이 함께하는 "제4회 둔촌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중국 심양시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제14회 둔촌백일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둔촌선조님을 선양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작으나마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둔촌선조님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계획도 면밀히 수립하여 착실히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둔촌선조님 생신제를 맞이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일

–대종회 도유사 玉 載–

■ 모범종인 · 효열상 · 특별장학생 수상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부(父 · 夫) 성명	소속지파
모범 종인 (11)	용찬(容粲)	20代	1939.3.12	父 秉來	사인공
	정래(貞來)	19代	1935.8.27	父 秉炤	광릉부원군
	상재(尙載)	21代	1935.10.30	父 容熙	문경공파
	문래(文來)	19代	1937.10.19	父 秉薰	
	후재(厚載)	21代	1931.9.20	父 容卨	광천부원군
	용세(龍世)	20代	1957.9.12	父 栗來	광원군
	석운(錫云)	20代	1959.1.1	父 元敎	좌의정공
	정래(貞來)	19代	1945.4.16	父 秉淵	참판공
	용상(容相)	20代	1935.8.28	父 泰來	좌통례공
	용표(容杓)	20代	1962.5.22	父 光來	문숙공
	종열(鐘烈)	22代	1953.10.19	父 順載	목사공
효열인 (9)	성태화(成台和)	昌寧人	1960.1.9	夫 鍾浩	사인공
	황선애(黃善愛)	昌原人	1966.3.2	夫 容鉉	광릉부원군
	이순호(李順浩)	全義人	1950.7.27	夫 故 容熙	문경공
	정오순(丁五順)	靈光人	1933.3.26	夫 故 柱俠	
	재선(載先)	廣州	1945.5.9	父 容德	광원군
	혜숙(惠淑)	廣州	1959.1.13	父 根碩	좌의정공
	황순덕(黃順德)	長水人	1953.3.23	夫 珍煥	
	주훈(柱勳)	廣州	1976.1.3	父 斗浩	참판공파
	분숙(粉淑)	廣州	1964.5.15	父 秉達	문숙공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부(父 · 夫) 성명	소속지파
특별 장학생 (18)	동욱(東旭)	22代	2002.2.24	父 慶載	사인공
	현민(賢旻)	22代	2000.3.31	父 恒載	광릉부원군
	용규(容圭)	20代	2001.9.11	父 喆來	
	송희(松喜)	21代	1998.4.28	父 容洛	문경공
	민수(敏洙)	23代	2000.6.20	父 鍾滿	광천부원군
	은지(殷知)	24代	1998.9.6	父 昌洙	
	수진(秀眞)	23代	2000.9.6	父 鍾彬	
	수빈(守彬)	21代	1998.12.11	父 容煥	광원군
	소정(昭晶)	21代	1998.6.26	父 容先	
	영채(泳蔡)	26代	2002.10.25	父 丞鎭(鎔薰)	좌의정공
	유진(柔珍)	22代	2001.6.14	父 濠載	좌통례공
	혜진(惠珍)	22代	2002.8.24		
	명수(明洙)	23代	2001.6.11	父 故 鍾明	
	보람(보람)	23代	2003.4.22		
	용진(容璡)	20代	1988.10.9	父 康來	문숙공
	소향(昭享)	21代	2002.3.2	父 中載	
	민영(珉英)	22代	1998.7.16	父 星九	목사공
	시춘(始訓)	23代	2000.4.3	父 鍾玑	
계			38인		

제24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시상식 개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예지)는 6월 1일(토) 오전11시 둔촌선생 생신제를 맞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둔촌선생 재실(추모제)에서 제24회 둔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 내 문인들과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61명의 청소년과 가족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예지 회장은 인사말에서 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한데 둔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과 둔촌선생의 생신도 같은 달이니 우연이 아닌 듯 싶다며, "나라사랑과 효성이 뛰어나 충효 정신이 남다른 둔촌 선생의 얼이 호국의 달을 빛내는 것만 같다"고 말하고 "이런 둔촌선생을 기리는 축제의 장에 함께한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큰 갈채를 보낸다며 입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이어서 대종회 옥재도유사의 축사와 김건중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들은 후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최우수상에는 초등부에서 대하초등학교 오현우, 중등부에서는 화홍중학교 3학년 민지수, 고등부에서는 수원외고 1학년 이채민 학생이 영예의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을 하였으며, 이중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은 한국작가협회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수상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날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표창장 및 소정의 상금과 함께 입상작품집이 주어졌다.

■ 제24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수상자

구 분	등위	훈 격	성 명	학교(학년-반)
고등부	최우수	도지사상	이채민	수원외국어고 1
	대상	경기예총회장상	한진주	이현고 3-4
	장원1	대종회도유사상	권이정	효성고 2-4
	장원2	대종회도유사상	박지민	동백고 1-10
	차상	경기문협회장상	경민고 전홍빈 외 4인	
	차하	경기문협회장상	용문고 최현정 외 4인	
	장려	성남문협회장상	덕이고 박정겸 외 6인	
중등부	최우수	도지사상	민지수	화홍중 3-1
	대상	경기예총회장상	박성하	양영중 1-6
	장원1	대종회도유사상	이우철	함현중 3-3

구 분	등위	훈 격	성 명	학교(학년-반)
중등부	장원2	대종회도유사상	김호연	산남중 1-7
	차상	경기문협회장상	영성중 최상민 외 4인	
	차하	경기문협회장상	이매중 이진명 외 4인	
	장려	성남문협회장상	문원중 안수만 외 5인	
초등부	최우수	도지사상	오연우	대하초 5-2
	대상	경기예총회장상	김미진	단남초 6-1
	장원	대종회도유사상	이하린	함현초 6-2
	차상	경기문협회장상	수진초 이재희 외 4인	
	차하	경기문협회장상	돌마초 최지우 외 4인	
	장려	성남문협회장상	운중초 황현묵 외 6인	

제24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을 맞아

안녕하십니까?

廣州이씨 대종회 도유사 李玉載입니다.

오늘 둔촌 이집 선생 탄신 693주기를 맞아 제24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을 갖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문인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여 시상식에 참석하신 청소년문학도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廣州이씨는 옛 경기도 광주군을 본향으로 하는 성씨(姓氏) 문중으로, 둔촌 선생께서는 우리 문중의 중흥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려 말 성리학자 둔촌 이집(遁村 李集)선생의 효행과 충절, 그리고 선생께서 남기신 학문과 도덕정신 등 숭고하신 뜻을 선양(宣揚)하고, 아울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굴 · 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문학도 여러분!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행사 때마다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문화예술은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것과 그중에서도 문학이라는 분야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 분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수상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분야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일단 소질과 가능성을 인정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분야와 주제에 따라 작가의 다양한 개성적 표현과 창조력에 의해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좋은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지식이 축적되어야 하고 그 지식은 독서와 배움을 통하여 터득하게 됨을 여러분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년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심사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문중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아무쪼록 본 문학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이를 계기로,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작가가 많이 탄생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문학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이예지 회장님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일

廣州이씨 대종회 도유사 李 玉 載

생신제 화보

참신제배

초헌례

제관들이 함께

도열한 지파도유사분들

공로패 전달

대종회 도유사 인사

특별장학생 시상

모범종인 표창

효열상 시상

축하하는 재진 전 도유사

청소년문학상 심사평

경기 문인협회장 인사

청소년문학상 시상

참사 종인들

청소년문학상 시상식

2019년도 모범종인 · 효열인 · 특별장학생 등 선정

대종회에서는 2019년도 둔촌선조님 생신제시 시상할 모범종인 및 효열인과 특별장학생 등을 선발하였다. 먼저 지난 5월9일(목)에는 지파 도유사로 구성된 대종회 장학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8명의 특별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5월15일에는 대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모범종인 11명과 효열상 대상자 8명, 그리고 종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2분의 종인을 선정하고 오는 6월1일(토) 둔촌선조님 생신제시 시상하기로 하였다.

장학관리위원회 회의

대종회 임원회의

재경화수회 성묘순례 -암사동 광릉부원군 묘소 참배-

재경화수회(회장 명환)는 5월17일(금요일) 2019년도 성묘순례행사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광릉부원군(휘 극배) 선조님과 그 후손 묘역을 찾아 참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명환 화수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오전 11시 묘전에 모인 회원들은 화수회 충교 총무의 진행으로, 참석 내빈 소개, 회장 인사, 광릉부원군파 종선 도유사 인사 광릉부원군 선조님 행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화수회에서 준비해온 제물을 차려 놓고 선조님께 예를 올렸다.

이후 근처에 모셔진 후손 묘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문수 총무로부터 장례원판결사(휘 시무) 광림군(휘 정립) 선조님에 대한 행적 설명이 있은 후, 묵념을 올리고 이날 성묘 순례 행사를 모두 마쳤다.

본 행사를 위해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종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차량을 동원하여 명일역에서 묘역까지 참석 회원들을 안내(충교 총무, 종길 화수회장, 종철 · 만재 · 철래 · 승재 유사)해 주어 불편함이 없었으며, 묘역에서는 종선 도유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임원들이 회원 한분 한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화수회 총무 충교 記–

지파종회 소식

관찰사공 종회

■ 관찰사공종회 장수축하금(長壽祝賀金) 지급

觀察使公(諱 禮字 孫)종회(도유사 善來)에서는 경로효친(敬老孝親)정신을 고양하고 선조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취(鼓吹)하고자 관찰사공 후손 중 90세 이상 생존하고 계신 子(아들), 女(딸), 子婦(며느리) 해당자에게 2009年 5月8日 어버이날을 기준하여 장수축하금(長壽祝賀金)을 지급키로 당시 相益 도유사께서 발의하고, 弼榮 도유사께서 1회를 시행한 후 2019년 5월8일 어버이날까지 11회째 이어오고 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2009年~2012年까지는 10만 원씩, 2014年부터는 15만 원씩을 우체국 경조문과 우편환으로 보내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총 553명을 대상으로 7,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혹시 주위에 觀察使公 後孫 中에서 (1931年 以前 出生하신 분, 90世 以上)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觀察使公 宗會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2020年 어버이날 빠짐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觀察使公宗會–

■ 칠곡 동산재에서 돈의계(敦誼契) 개최

지난 5월 19일 경북 왜관 석전리 소재 동산재에서 2019년도 돈의계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익공(휘 원정) 선조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친족 상호간 화목 도모가 목적인 본 행사는 매년 5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득래 좌통례공도유사를 비롯한 필주 귀암공종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돈의계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된 행사는 내빈소개, 조상님에 대한 묵념 및 회장인사, 좌통례공도유사 축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중식 후 2부 행사에서는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으로 참가자 모두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다.

37돌을 맞는 돈의계는 종친간의 친목 도모와 후진들을 위해 선조님들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창설한 모임으로 매년 5월 중 많은 종친들이 참석하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 시대로 접어든 이때, 앞으로 종인들 간의 만남과 담소를 나누며 둔촌선조님의 "백대지친" 유훈을 받들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젊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청장년층 주도로 가족 단위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하여 애쓰신 돈의계 부녀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돈의계 총무 택완 記–

광릉부원군파 종회

■ 화수회 광릉부원군 묘역 환경정화 작업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5월14일 광릉부원군 묘역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종길 화수회장을 비롯해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묘역 주변 청소와 잡초를 제거하고, 가뭄으로 인한 잔디 물주기, 신도비각 청소 등을 팀별로 분담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오전 환경 정화작업을 완료한 회원들은 종길 화수회장이 준비해온 제물을 차려놓고 할아버님께 고유를 올린 후 음복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길 회장은 3일 후 재경화수회에서 성묘순례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회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였다. 이후 묘소에서 내려와 서식당(송가네)으로 자리를 옮겨 영양탕과 오리백숙으로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이날 찬조를 해주신 봉수(鳳洙) 부도유사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 광릉부원군파 광명종회 성묘순례

광릉부원군파 종회 광명종회(회장 곤수)에서는 5월19일(일) 선조님 묘소 성묘순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3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였으며, 오전 8시경 광명시를 출발하여 1시간을 달려 첫 번째 방문지인 성남시 하대원동에 도착하였다. 먼저 둔촌 할아버님 묘소에 올라 주과포를 차려놓고 예를 올리고, 곧이어 청백리 공(휘 지직)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린 뒤 하남시로 이동하여 시조 비 인화이씨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렸다.

이후 일행은 여주로 이동하여 충희공(휘 인손) 묘소를 찾아 예를 올리고 귀경하였다. 이날 휴일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석재 문화유사께서 동행하여 묘역 안내와 선조님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준 대종회 석재 문화유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애국지사 이용태 용준, 종건 선생 묘역 참배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5월25일(토)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애국지사 단암 이용태 선생을 비롯한 용준 · 종건 선생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후 광릉부원군파 종회 자문위원을 지내셨던 국가유공자 용대 · 용진님 묘역에 들려 참배를 드렸으며, 이후 귀경길에 충주 · 해주 목사를 지내신 목사공 휘 만형(諱萬亨)선조님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리고 귀경길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 총무, 승재 재무, 종길 화수회장 종봉 화수회 총무가 참석을 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끝까지 일정을 같이 하여주신 대전 해주목사공 종회 용복(容福)총무와 증재(增載)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記–

문경공파 종회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 야유회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회장 경래)에서는 5월20일(월) 충주 단양지역 지방 문화재 역사탐방에 나섰다.

오전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빌딩 앞에는 많은 종인들이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으며, 8시30분 서울을 출발, 관광버스 편으로 영동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니 모처럼 마음도 몸도 상쾌함이 느껴진다.

충주호 방면으로 가는 길, 4月의 벚꽃잎 흩날리던 그 길은 이제 연둣빛 새잎 돋은 벚나무 가로수들로 가득하다. 구불구불한 옛길은 그대로 청풍호로 이어지고 봄볕 아래 반짝하고 드러난 청풍호는 풍광이 정말 아름답다.

이곳 청풍호에는 풍광이 제일 아름다운 곳에 청풍 문화재 단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청풍면과 수산면 일대 문화재를 청풍호 수몰 전 이건하여 관아, 향교, 민가등 문화재 43점과 생활 풍습 유물도 함께 전시하고 있었다.

문화재 관람을 마친 회원들은 단양의 특별 음식인 마늘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곁들여 소주와 막걸리로 건배를 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다음 장회나루로 이동하여 유람선에 몸을 싣고 1시간 40분 가량 아름다운 청풍명승의 경관을 즐기며 구담봉, 제비봉, 노들평지 등을 감상하였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광문회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가 있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경래 후보가 재선임 되다.

경래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문경공 종회의 화합과 친목을 강조하고 종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자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경공파 종회 총무유사 경수–

광천부원군파 종회

■ 광천부원군파 종회 수상(受賞)

광천부원군파종회(都有司 成浩)에서는 2018년 12월18일 강동구에서 실시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행복나눔 사랑의 일일찻집 :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표(表)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유관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함께하였는데, 2019년 4월19일 16시 동 행사의 결산보고 및 강동구 내의 우수기부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광천부원군파 종회가 천호3동의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성호 도유사께서 종회를 대표하여 수상하였다.

강동구청장(이정훈)은 인사말에서 강동구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 (장애인, 기초수급자,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신 여러 기부자께 감사(感謝)함을 전하였으며, 사회복지(社會福祉) 공동모금회(共同募金會) 사무처장이 경과보고와 성금 · 품(誠金 · 稟)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천호3동 주민센타 에서는 동장(오동진)을 비롯한 팀원들이 축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고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어 함께 하자는 인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해금동아리" 단체의 공연을 끝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한 후 모두 마쳤다.

■ 광천부원군(휘 극증) 525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천부원군파종회(도유사 성호)는 2019. 4. 29(月)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광천사에서 광천부원군(휘 극증) 파조님의 525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오전 9시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수원 경기대 후문에서 20여명의 참사객(參祀客)을 동승시킨 후 충북 괴산 부조묘(不祧廟)인 광천사에 도착하니, 본손(本孫)의 각지역 여러 종원들께서 모든 제례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 제관들은 유건(儒巾)과 제의(祭衣)를 갖추고 11시 30분경 제례에 임하였다.

성호 도유사는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하고, "20만 광주이씨의 수장(首長)이신 대종회 옥재(玉載)도유사님. 충희공 병대 도유사님을 비롯하여 5군지파의 도유사님과 종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사님 그리고 우리 본 종회의 고문 및 6개지역 종회장님이 모두 참석하시는 뜻깊은 날"이라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또한 광천사(부조묘)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봉사손의 집 동쪽에 정면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의 목조 기와집으로 400여년 전에 세워진 후 매년 향사(享祀)하여 왔었으나, 낡고 피폐(疲弊)하여 1997년 중수계획을 세우고 2000년 7월 착공하여 2002년 4월 28일에 준공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올해 파조님 525주기 제향(祭香)을 맞이하여 사당(祠堂)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 많은 사람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광천부원군에 추증(追贈)되신 파조님의 부조묘(不祧廟)를 널리 알리고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대종회(大宗會) 옥재(玉載)도유사께서 축사(祝辭)를 동해 "오늘 이 자리에 5군지파의 도유사와 유사들이 다 모여 제례를 올리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좋은날"이라고 말하고, 집행부의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를 하였으며. "오늘 광주이씨의 단합된 모습에서 백대지친의 정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으로 제례에 임하는 자리"라고 말하였다.

이날 제례는 초헌관에 성호 도유사, 아헌관에 병대 충희공도유사, 종헌관에 경래 문경공파 도유사께서 헌작하였으며, 축관에는 영래. 집례는 종성. 전사관은 종관. 집사에는 종안 · 찬수 · 광재 · 석광 · 종국 · 종문 · 윤수 종인들이 맡아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망요례(望燎禮)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숭조(崇祖)의 예를 갖추어 한 시간에 걸쳐서 봉행되었다.

이날 대종회, 충희공종회, 광릉부원군, 문경공, 광원군, 좌의정공, 동고종회(문경공), 도정공종회(광원군), 부사공종회(광원군)에서 금일봉(金一封)을 향촉대(香燭代)로 봉헌(奉獻)해 주신 분들과 참사(參祀)하신 모든분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례를 마친 후 식당으로 옮겨와 음식을 나누며, 종친간의 화합과 선조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음덕에 감사드리는 단합된 자리를 가졌다.

–광천부원군파 총무유사 종두–

광원군파 종회

■ 참의공 설단 고유제봉행

도정공종회(용철 회장)는 2019년 4월14일(일) 400년의 숙원사업인 先代 5위 선조님의 설단제(設壇祭)를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9–1 선산에서 봉행하였다.

광원군파 도정공계종회의 지종회인 수란(秀蘭) 선조님으로 부터 윤신(潤身) · 여청(汝淸) · 경립(景立) · 기상(麒祥) 등 5대 선조님의 실전된 묘지를 수백년간 찾아왔으나 찾지 못하여 숙원사업으로 여겨오던 중, 종의를 모아 5대 선조님을 설단키로 하고 대종회의 지원과 자체기금 등을 조성, 2019년 4월14일 설단을 마치고 고유제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날 제례는 초헌관에 춘재 참의공종회장, 아헌관에는 용철 도정공종회장, 종헌관에는 용환 양진제공종회장, 축관에는 종찬 도정공 부회장, 집례에는 택재 도정공 총무, 집사에는 용노 · 걸재 · 용재 · 혁재 현종이 수고하였다.

춘재 회장은 서울서 내려온 대종회 걸재총무, 광원군 갑수총무, 양진재 용환회장 및 도정공 용철회장 이하 임원진 7명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이어서 도정공 용철회장은 "도정공이하 4개 지종회의 선양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종회장으로써 감사하다"며 설단제를 축하하여 주었다.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 현령공 공원묘지 고유제

광원군파 도정공종회(회장 용철)는 2019년 4월 20일(토) 양평군 지평면 산29번지에서 선조 공원묘지 준공 고유제를 여러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하였다.

이날 고유제는 개회사, 선조님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건재 현령공종회장 인사, 용철 도정공종회장 축사 그리고 고유제,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례는 초헌관에 건재 현령공종회장, 아헌관에는 용철 도정공종회장, 종헌관에는 경래 문경공파 도유사, 축관에는 종찬, 집례에는 택재, 집사에는 용노 · 용각 · 종찬 · 종문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도정공 종회의 용철회장은 임기 초(2014)부터 도정공계종회의 4개 지종회 사복시(휘 여량)종회, 통덕랑공(휘 여공)종회, 현령공(휘 여검), 참의공(휘 수란)종회의 현양사업을 계획하고 도정공 종회에서 지종회를 독려하여 사복시정공종회는 시조인화이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비문을 쓰신 광운조의 세적비건립, 통덕랑공종회는 선조님 설단사업, 참의공종회는 실전된 5선조님(수란 · 윤신 · 여청 · 경립 · 기상) 설단 건립사업, 현령공종회는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대종회로부터 내려온 현양사업비 3,500만원을 광원군파종회로 부터 전액 지원받고, 도정공 종재를 더하여 각 지종회별로 1200여 만원을 4개 지종회에 교부하였으며, 각 지종회 별로 자체 종재및 찬조금을 보태어 상기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현령공종회는 다른 지종회보다 많은 돈을 조달하여 2억원을 들여 가족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도정공종회에서는 행정지원을 하여 2019년 4월20일 고유제를 봉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령공종회 종원들은 고유제를 축하하기위하여 충희공종회이하 5군(광릉부원군, 문경공, 광천부원군, 광원군, 좌의정공)종회의 도유사 및 집행부 등이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그동안 공원조성에 고생을 모두 잊은 듯 밝은 모습으로 행사 진행에 참여하였다.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 장렬공 휘 윤덕 408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원군파 도정공종회(회장 용철)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성수동 도정공회관 6층 재실에서 25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렬공(휘 윤덕) 선조님의 서거 408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에는 대종회 옥재 도유사와 석재 문화유사, 부사공 은재 종회장, 감사공 석래 종회장, 충민공 종명 종회장이 참석해 주어 어느 해 보다 뜻깊은 불천위제가 되었으며, 제관으로는 초헌관에 용철 도정공종회장, 아헌관에는 석래 감사공회장, 종헌관에는 은재 부사공 회장께서 봉향하였고, 축관에 종찬, 집례에 택재 도정공종회 총무, 집사에는 종찬 · 종찬 · 용각 · 양재 등 젊은 종인들이 수고해 주었다.

公은 둔촌선생의 6대손이시며, 諱는 윤덕(潤德)이요, 字는 득부(得夫)로 중종(中宗) 기축 1529년 生이시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시어, 선전관을 제수받으니 명종 14년 모화관에서 열무중 위기에 처한 왕을 구함으로서 명종의 특별한 지우를 받았고 절충장군, 대호군, 내승(內乘), 첨지중추부사, 함경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서총대에 나아가 칠언배률 二十韻을 지어 무신중 장원을 하였다. 公이 참전한 동대원과 왕성탄 전투는 임진왜란중 육전에서의 첫번째 승리를 함으로서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왜군을 평양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명군이 참전함으로 조명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세를 아측에 돌려놓는데 지대한 공적을 세우니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운을 바로잡고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제례를 마친 종인들은 인근 "충남"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먹으며 돈목의 시간을 가진 후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오늘 불천위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광원군파 총무유사 갑수 記–

大司諫公(諱克圭)의 再照明 [小攷]

지난 三月 支派 總務會議에 參席했다가 大邱로 내려갈 열차시간이 남아 새봄의 화사한 햇살을 받아가며 인사동에서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걸어 광화문 앞에서 잠시 先祖님들께서 活動 하시던 조선시대로 봄 꿈을 꾸어 본다.

조선時代에는 벼슬 하는것이 人生의 최고 가치로 알며 이름을 世上에 드러내고 父母님을 영예롭게 하는 길은 오직 大科에 及第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벼슬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쟁이 치열했겠는가?

조선왕조 오백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벼슬자리를 거쳤다. 하지만 명성과 권세를 탐하는 代身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 해낸 사람, 또 볼만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廣李의 先祖님의 記錄을 살펴보면 高麗生員公(諱 唐), 遁村先祖(諱 集), 淸白吏公先祖(諱之直), 舍人公先祖(諱長孫), 大司諫公先祖(諱克圭) 等 내리 5代가 不幸한 삶을 살으신 것으로 推測된다.

먼저 生員公께서는 逆僧 辛旽(신돈)의 禍를 피하여 永川에서 은거 중 그곳에서 세상을 뜨셨고 遁村先生은 기울어져 가는 高麗의 國運을 恨歎(한탄) 하시다 川寧에서 세상을 뜨셨으며 淸白吏公께서도 廣川 炭川에서 外方從便 하시다 세상을 뜨셨다. 또한 舍人公께서도 先親의 侍墓中 돌아가셨고, 舍人公의 외아드님 이신 大司諫公께서도 폭군 연산朝 때 간신들의 모함으로 해주 수양산 밑으로 낙향 하시어 수 많은 인재를 가르치다 그곳에서 돌아가시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大司諫公(諱克圭) 先祖님의 十七代 直孫으로 몇가지 推測해 본다.

大司諫公의 生卒年度가 밝혀지지 않는다. 先祖님은 舍人公의 외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아버지 舍人公께서 31歲로 逝去 하시기 전에 誕生하셨을 것으로 보면 최소로 할아버지 淸白吏公先祖께서 돌아가시기 前인 1419年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여진다.

四寸인 廣陵府院君(諱克培)이 1422年에 태어나셨으니가 2~3歲위 쯤 推測이 될 뿐이다. 그러나 先祖님께서 成宗2年(1472年)에 生員으로 文科 及第를 하셨으니 52~3歲에 出仕 하셨다는 結論이 나온다.

四寸들 특히 五君 兄弟분께서는 모두 弱冠(약관)에 文科 及第를 하셨는데 비단 大司諫先祖 께서만 늘그막에 文科 及第 하셨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그러나 先祖님의 聘父 되시는 海州人 吳 蒙禮(오몽례)公의 族譜를 살펴보면 年代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것 같다.

大司諫先祖님 께서는 先親을 어려서 여의고 여덟누님들의 보살핌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推測 되며 性品은 剛直 하였다고 한다. 吏曹正郎을 거쳐 地方의 道事와 兵 · 戶曹參議에 올라 通政大夫가 되고 判決事를 거쳐 司諫院의 首長인 大司諫까지 올랐다.

그러나 연산 昏朝에 奸臣들의 專橫(전횡)이 심하자 벼슬을 버리고 妻家곳인 海州 수양산 밑으로 은거하여 地方人才를 많이 배출 하시었다. 海州에서 從弟와 從姪들이 폭군연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귀양길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이다. 實錄에서는 先祖께서 楷字体(해자체)를 잘써 중국에서 使臣들이 다투어 자기 先祖의 비문 等을 받아 갔다고 記錄되어 있는데 집안에는 現存(현존)하는 것이 없어 有感 스러울 뿐이다. 先祖님께서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는지 밝혀지지 않으나 학문이 높고 고상한 氣質(기질)로 剛直하게 사시었다고 한다. 어려서 누님들의 보살핌으로 生活하신 탓에 廣陵府院君 兄弟들처럼 애뜻한 友愛가 부러웠다고 한다. 從兄弟 再從들도 많아 그래도 덜 외로웠겠지만 아드님 삼형제 에게 密紙遺訓(밀지유훈)을 남겨 友愛롭게 살 것이며 昏朝에 處身(처신)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설명하고 벼슬을 탐하지 말며 가문을 잘 지킬것을 訓戒(훈계) 하셨다고 한다. 性品이 剛直한 것은 祖父, 父의 性品을 닮았고 聘父의 대쪽 같은 性格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推測된다. 聘父의 성품을 太祖(이성계)도 대쪽 같고 淸雅(청아)하며 강직스럽다고 말했다는 記錄도 있다. 剛直한 性品으로 諫官의 벼슬에 오랫동안 계시어 奸臣들의 猜忌(시기)를 많이 받았다. 폭군 연산朝에 몇차례에 걸친 사화가 일어나 受難(수난) 당한 從兄弟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몹시 아파했을 것이며, 오로지 학문을 후학에게 강론하시다 그곳에서 돌아가시니 아드님 삼형제는 廣州先山 上大院里의 舍人公 墓下에 禮葬하였다. 後日 昌寧 雲谷書院에 祖, 父와 함께 享祀를 모시였고 1970年 城南 市街地 개발로 아버지 舍人公과 함께 遁村先祖 墓下로 移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舍人公, 大司諫先祖님 편히 잠드소서!

–舍人公 十七代孫 容華 謹書–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4]

본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훈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항으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수록합니다. 현재까지 보훈처에 등록이 확인된 廣李문중의 독립유공자는 30여명이며, 추후 계속 확인하여 수록할 예정입니다.

■ 강(剛 : 지파미상)

평안남도 용강(龍岡)군 봉산(鳳山)면 황산(黃山)동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주개발회사(美洲開發會社)에서 모집하는 이민에 들어서 하와이로 건너가 1년간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듬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유학을 하려다가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그의 권고로 이를 단념하고 안창호 정재관(鄭在寬) 등과 함께 교민단체로서 1904년에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설했으며, 1905년 11월에 동지들과 함께 기관지인 『공립신문(共立新聞)』을 창간하여 주필이 되었다.

1907년초에는 안창호와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기로 하고 안창호를 먼저 귀국시킨 후 뒤이어 이강도 귀국하여 양기탁(梁起鐸)을 중심으로 국내 동지들과 함께 1907년 4월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를 창립하였다.

이 강은 몇 달 후에 노령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신민회 블라디보스톡 지회를 설치하였다.

1909년 2월에 신민회의 합법적 외곽단체로서 미주에서 종래의 공립협회를 확대개편하여 재미주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조직되자 정재관 등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추어 재로대한인국민회(在露大韓人國民會)를 조직하여 각 지방과 지회를 설치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또한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지들과 함께 『해조신문(海朝新聞)』을 창간하여 편집 논설기자로 활동했으며, 이 신문이 『대동공보(大東共報)』로 이름을 고친 후에도 그 편집책임을 맡았다.

1909년 10월 이등박문(伊藤博文) 처단계획이 대동공보사에서 수립될 때 이에 참석하였으며, 안중근(安重根)이 이등박문 포살의 특공대로 하얼빈에 나갔을 때 안중근과 대동공보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안중근의 의거가 성공한 후에는 안중근 의사를 위한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하여 북경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대동공보』가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정간 당하자 시베리아의 치타로 가서 다시 『정교보(正敎報)』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9년 9월에 노령에서 파견한 강우규(姜宇奎) 의사가 일제총독 재등(齋藤)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 연루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에 체포, 서울로 압송되어 약 50일간 구금되었다.

1919년 말에 석방되자 바로 상해로 탈출하여 안창호를 만나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議政院)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으며 흥사단(興士團) 운동에 진력하여 흥사단 원동지방위원회(興士團遠東地方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세력이 장강(長江) 일대에까지 뻗치게 되자 상해를 떠나 남중국 방면으로 갔다. 1928년에 하문(廈門)에서 강연을 하다가 일제경찰에 납치되어 평양으로 호송되었으며 징역 3년형의 언도를 받고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하자 다시 고국을 탈출하여 중국 복건성(福建城)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았다.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대만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한 선무단(宣撫團) 단장이 되어 대만으로 갔다가 1946년에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88 399 445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19면
기려수필 247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43 345 786 829 831 867면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220면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536 829면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27 58면
조선민족운동연감 211면
무장독립운동비사 44면
고등경찰요사 96 12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667 698 69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6 45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18 92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66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35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47 77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19 23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55 66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204 662면

■ 명하(命夏 : 지파미상)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02년 구한국 제천군 주사(主事)로 일하였으며, 1907년에는 유인석(柳麟錫) 의병장 휘하의 소모장으로 친일파인 청풍(淸風)·단양(丹陽)·영춘(永春)군수를 참살하였다.

1919년 상경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년 10월 만주로 망명, 독립군 제3지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년 2월에는 3도구(三道溝)에서 하야(河野) 순사부장등을 사살하였다.

동년 12월 25일(음) 3도구만(三道溝灣) 중국인 소운주(蘇雲朱) 집에서 평북 제3부 일경찰대에 포위, 습격을 받아 교전하다가 동지 백학원(白學元)·안중석(安重錫)·김근배(金根培)·박초식(朴楚植) 등 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03·448·534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17면

◈ 편집자 註 : 지금까지 광이 독립운동가 서른 분(30 분)에 대한 내용을 국가보훈처에 공식 등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 드렸으며, 이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개에서 누락 되었거나 추가 지정되신 분이 계실경우 대종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고칩니다. 〈제347호〉

■ 2면 하단 좌측 제목 : (諱 俊慶) → (諱 浚慶)

■ 4면 2단 좌측 상 4행 : 秉淳 전_회장을 → 秉淳 전 광주·전남종친회장, 하단 좌측 제목 : (春香祭) → (春享祭)

■ 11면 중단 주석)내용 한문표기 : 상전벽해(桑田碧海),무상(無常), 양(陽), 음서(陰西), 정덕(貞德), 절(寺刹). 당대(唐代), 각조(各曹)

* 편집자 시하(24대) 주(註) : 아래의 글은 2018.03.07 매일경제에 게재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열강의 틈에 끼어 나약했던 대한제국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난국에 한음 이덕형과 같은 외교력이 뛰어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연재 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이자 명재상 이덕형 [1]

–리더는 유연과 엄격, 두 개의 얼굴이 필요하다–

이덕형은 그 공과 능력, 학식, 인품에 비해 조금은 덜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덕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명콤비의 학자와 재상으로 대개는 오성 이항복과 한 묶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음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보이지 않은 큰 공을 세운 뛰어난 재상이었다.

▶선배, 동료, 후배, 적도 감탄한 인품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는 세종 치세이다.

부왕 태종의 피의 숙청으로 나라의 틀이 완성되고 왕권은 더욱 견고해졌다. 세종이 뛰어난 것은 그 왕권을 오로지 백성과 나라의 안녕과 부강을 위해 썼기 때문이다. 세종은 리더십의 달인이었다. 그가 발탁하고 중용한 인물들은 조선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훌륭한 리더 세종이 그들을 길러낸 것인지, 시대가 인재의 풍성함을 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세종의 리더십과 인재의 탄생이 그 궤가 맞은 것일 것이다.

잠깐 세종조의 명신들을 살펴보자.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며 세종 치세를 이끈 황희, 황희와 함께 쌍두마차로 행정을 관장한 청백리 맹사성, 외교 문제를 전담했던 천재형 관료 윤회, 국방 문제에 있어 세종의 자문관이자 가장 믿음직한 장군 김종서, 태종이 세종에게 "이 사람은 나의 주춧돌이다"라며 중히 쓸 것을 당부해 세종이 이조판서를 맡겨 공직자를 관리하게 했던 허조, 20년간 대제학으로 지내며 세종조의 학문적 기반을 닦은 변계량 등이 있었다.

여기에 세종이 대신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 "정인지가 이렇게 말했다"라 할 정도로 학문적, 정치적 식견을 신뢰했던 정인지, "당 태종에게 위징이 있다면, 나에게는 신숙주가 있다"라며 그 존재 자체를 자랑스러워했던 신숙주, 뛰어난 학문적 성취와 성실성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일등공신 성삼문, 세종의 정치적 스승으로 그가 사망하자 세종이 친히 흰옷을 입고 애도한 영원한 스승 이수, 그 외에 이종무, 최윤덕, 장영실, 박연, 최항, 박팽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가 바로 세종 때이다. 당연히 성군 세종과 뛰어난 신하들로 인해 세종 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에 있어 흠잡을 것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세종 이외에 조선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와 그 왕은 누구였을까. 의견이 여럿일 것이다. 정조 시대의 채제공과 정약용, 인조, 효종 시대의 김육, 태종 시대의 하륜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선조 시대이다. 임진왜란으로 무능한 임금의 대명사처럼 된 선조 시대가 세종 시대와 비견될 만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활약한 시기이다. 물론 '난세에서 영웅이 탄생 한다'는 말처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들이 더 돋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조 시대 명재상들은 조선 조 어떤 시기에 등장했어도 당대를 경영할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7년간의 전란, 그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 혼란을 수습하며 국가를 재건해야 할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들이 있어 조선의 명줄이 500년은 지탱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이산해, 이순신, 권율, 신립, 김시민 등이다. 7년 전란을 진두지휘한 류성룡과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바다에서 육지에서 왜군을 막아낸 이순신, 권율의 공은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이 컸다. 수도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야반도주한 선조를 모시고 갈가리 찢긴 국론을 모아가며 고군분투한 이들이 있어 그나마 조선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가들은 임진왜란을 이겨낸 첫 번째 공로자로 서애 유성룡과 충무공 이순신을 꼽는다. 그 다음은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즉 3리(李)를 든다.

그중에서도 이덕형은 그 공과 능력, 학식, 인품에 비해 조금은 덜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덕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명콤비의 학자와 재상으로 대개는 오성 이항복과 한 묶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음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보이지 않은 큰 공을 세운 뛰어난 재상이었다.

그는 부산포로 침략한 왜군이 첫 협상 제안을 할 때 파트너로 지목한 재상이었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명나라에 청원사로 가 명나라의 참전을 성사시켰다. 또한 거만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온갖 오만과 불손을 인내해가며 그들을 전장으로 이끈 접반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선조 사후 광해군 때에는 임해군, 영창대군의 존재로 인해 명나라가 광해군을 인정치 않자 진신사로 두 번이나 명나라에 가 광해군을 정식 조선의 왕으로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이덕형의 외교적 성과는 그의 공과 능력의 반 푼 정도이다.

이덕형은 명문가 광주 이 씨 출신으로 당대 세도가 이산해의 사위였다. 20세에 과거 급제로 관리가 되어 학식과 인품 등에서 출중한 재능을 보여 31세에 대제학에 임명되었다. 대제학은 비록 정승보다는 직급은 낮았지만 육조의 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참찬과 더불어 정2품 '정경正卿'으로 불리며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는 직책이었다. 대개의 경우 당대 최고의 학문과 이론을 겸비한 노련한 대신들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이덕형은 31세의 나이에 대제학이 되어 조선의 선비들을 이끌며 당대의 학문, 문장, 여론을 관장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대제학에 임명된 이덕형의 사례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다. 또 있다. 이덕형은 38세에 최연소 정승이 되었고 43세에 영의정에 오른 가히 비교불가의 기록을 갖고 있는 당대의 인물이었다.

혹자에겐 이덕형이 지위와 명예를 이루고자 매진했고 당대 세도가인 장인 이산해의 덕으로 고속승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덕형은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신뢰하고 존경한 인물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덕형에게 심복했고 세상의 인심 역시 그를 따랐다. 이는 이덕형의 타고난 품성과 깊은 학문, 공정한 원칙 덕분이다. 이덕형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 이항복은 이덕형보다 5살 위였지만 항상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강직한 이원익도 원만하고 부드럽지만 원칙 앞에서는 대쪽 같은 이덕형을 신뢰했다. 이덕형은 스스로 적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는 상대와 소통하고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이덕형의 이러한 인품이 가장 잘 발휘된 분야는 외교이다.

이덕형은 임진왜란 발발 5년 전부터 3년 동안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당시 이덕형을 상대했던 일본의 승려 겐소는 이덕형의 풍부한 학식과 인품을 존경했고 임진왜란에 종군한 겐소는 협상 파트너로 이덕형만을 원했다. 명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덕형은 명나라로 가 조선과 일본의 공모에 의한 전쟁으로 오해하던 명나라 조정의 오해를 풀고 참전에 소극적이던 병부상서 석성에게 "만약 조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훗날 왜군은 물론이고 조선군도 모두 왜군이 되어 창을 잡고 명나라를 상대할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강한 논리로 명나라를 설득했다. 그의 배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있다. 한양을 떠나 평양, 의주로 피신한 선조와 조선 조정과는 별도로 이덕형은 오히려 왜군을 만나 조선 침략을 엄하게 꾸짖었다. 이에 겐소는 "이덕형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위급한 때에 말하는 것이 평소와 다름이 없으니, 범인은 참으로 미칠 수 없다"고 감탄했다.

〈다음호에 계속〉

필마(匹馬)와 청백리(淸白吏)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특기와 취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특기가 가하면 장인(匠人)으로 선정되고, 취미가 가하면 특기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하였을까?

어려서부터 말(馬)을 유독 좋아하여 항상 애마(愛馬) 한 필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병마절도사공 상원(象元)公께서 글의 주인공이시다. 상원公께서는 광릉부원군의 6대손으로 1574년(선조7)년에 출생하셔서 1612년(광해군4)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에 원을 지내시고 중화부사와 장연부사,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시었다. 公께서는 어려서 부터 유난히 말(馬)을 좋아하셔서 말(馬)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직 생활을 하시면서 필마(匹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公께서는 천품이 청렴결백하시어 당시 관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말 한필 외에는 지니고 계신 것이 없었을 정도로 청백하시어, 청백리(淸白吏)후보로 여러 번 추천이 되었다. 청백리(淸白吏)란 청렴결백하고 모범적인 관료에게 조정(朝庭)에서 녹선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동료들의 평가와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그리고 당상관, 의정부 등에서 장이 추천하여, 엄격히 검증하고 심사하여 결격 사항이 없을 때 비로써 통과되어 녹선(錄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께서는 여러 번 청백리 후보로 오르셨으나, 필마 한필로 인하여 심사에서 녹선이 못되어 그 당시 의논이 아깝다 고 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비록 말(馬)한필 때문에 청백리로 녹선이 안 되셨을지 언 정 공께서는 애마(愛馬)의 고삐를 손에서 노치 않으셨으니, 이 또한 취미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양반가의 절개(節槪)인가 비록 필마 때문에 청백리로 녹선은 안 되셨지만 공께서 필마가 얼마나 소중하였던지 알아보도록 하자. 때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 되고 인조가 즉위하였는데 이때 인조는 53명의 정사공신을 책록 하였는데, 논공행상(論功行賞)끝에 이괄(李适 1587-1624)은 정사공신 2등으로 책록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이괄은 평안 병마절도사와 부원수를 겸하여 평안도와 영변에 수비를 강화하고 북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조정에서는 문회(文晦) 이우(李佑) 등이 이괄과 기자헌 등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으니 관직삭탈하고 국문을 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청하였는데, 임금은 이괄은 충의로운 신하인데 두 마음을 품을 리 없다 하시며 이들의 청을 일축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조정에서는 기자헌을 비롯해서 역모 협의가 있는 관리들을 불러들여 하옥시키고 국문을 하였는데, 이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이괄의 아들 이전을 잡아들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전은 아버지인 이괄과 함께 영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인조는 금부도사 고덕률 선전관, 중사 등을 영변으로 보내서 이괄의 아들 이전을 데리고 올 것을 명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괄은 아들이 역모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금부도사 일행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자헌을 비롯하여 역모 혐의자 모두를 처형하였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1등 공신이면 어떻고 2등 공신이면 무엇이 크게 다르겠는가? 한낱 인간의 욕심인 것을---

이괄은 휘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군을 구성하고, 당시 역모로 의심을 받고 있던 구성부사, 한명련도 찾아온 금부도사를 죽인 뒤 군사를 이끌고 이괄의 반정군에 합류하였다. 이괄은 주변의 수령들에게는 도성에 변고가 생겨 구원하러 간다고 속이고, 개천 황주, 개성을 거쳐 한양에 입성하였다. 인조는 즉위 10개월 만에 한양을 떠나 공주로 피신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편 이후 이괄은 한양에서 정부군에게 크게 패한 뒤 광주를 거쳐 이천에 이르러서, 아들 이전과 한명련 등과 함께 아군인 반정군 이수백에 의해서 시해 되었다. 기"내용이 이괄의 난이다.(이하생략) 이 무렵 상원 公께서는 중화부사로 재임중 이었으며, 이괄은 평소 공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괄은 公을 피해 군사를 이끌고 임진강에 도착하자 모든 나룻배들을 다 치워 없애 버리고 임진강을 건너 한양을 향해 계속 진격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눈치 챈 상원 公께서는 급히 말고삐를 움켜쥐고 한양을 향해 채찍을 가하였다, 이윽고 공께서는 임진강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려하니 나룻배가 단 한척도 보이지 않았다, 公께서는 이괄의 소행임을 눈치 채시고 고심 끝에 애마(愛馬)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말(馬)에게 채찍을 가하여 말이 헤엄을 쳐 임진강을 간신히 건넜다. 이때 공을 따라온 奴두지(종)도 말꼬리를 잡아 쥐고 강을 건너 公을 호종하였다. 公께서 필마를 사랑했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괄은 한양 입성에는 성공하였으나 얼마 후 정부군에게 패하고 이천에서 부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후 공께서는 진위(現在 평택시 진위면) 향제에 머무르시다가 인조께서 1636년(인조14) 12월 병자호란을 만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진위 향제를 떠나 필마(匹馬)에 오르시고 행재소(임금의 임시 거처)로 향하여 가셨는데 이때 남한산성 밖에는 적세가 강대하였다. 공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검무로 적진을 향해 돌격해 쳐들어가니, 적병들이 크게 놀라며 모두들 두려워하였고 뒤돌아서서 보고만 있을 뿐 감히 대들지 못하였다. 이때 적장이 바라보며 이 사람이 조선에 명장이라고, 소리치며 적병에게 명령하여 사로잡으라고 외쳤으나, 포위조차도 하지 못하였으며, 公께서 성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이상원(李象元)이 여기에 왔소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 성문을 지키던 장수들이 문을 열어주며 마중하였고, 公께서 문내에 들어가 今上을 찾아 상견하고 이후 임금을 호종하게 되었다. 난이 끝나자 임금은 특별히 장연부사로 임명하여 단기로 부임하였고, 후일 황해도 병마절도사에 이르렀으며 1645년 (인조23)에 72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公께서는 원종공신으로 녹훈되었고 증직이 호조판서(戶曹判書)이시다. 公께서는 특히 검무(劍舞)에 능하셨기에 후예들은 公의 DNA 닮아 무수히 무과에 급제하였다. 公의 1대손 휘 만영 사헌부 감찰 2대손 휘 석근 황해도 병사 2대 휘 대근 해주 병마 검 절제사 3대손 휘 행검 경기 수군 절도사, 전라 병마절도사, 4대손 휘 장엽 전라병사 증"병조참판, 5대손 휘 은복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이며 증직이 병조참판이시다. 참고로 대사헌 공계 안성종회 및 광주 대쌍령 종회 종인들이 직 후손이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書-

수종사(水鐘寺)

물결에 건져올린 종소리 따라
산사를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세속과의 절연이러니
단애의 절벽
운길산 정수리에 정좌하여
구름 위에
둥실 떠있고 싶다.
불이문(不二門) 바깥 언덕
하늘 우러러
여명을 지키고 서있는
팔백 살 은행나무 가지엔
지조 높은 청백리
한음(漢陰)의 기침소리가
역사의 울림으로 달려있다.
삼정헌(三鼎軒) 다실
창틀에 수북한 시집을
집히는 대로 실컷 읽다가
찻잔 향기에 취해
시(詩) 한 귀절 마음에 저려오거든
앉은체 그대로 세상을 내려다보라.
북한강 남한강이 아우르며
팔당호 파란 도화지에
그려 놓은 두물머리
수묵화 한 폭에
눈을 씻어도 좋으니.

-이 기 순-

* 수종사는 남양주시 운길산에 위치하며 한음께서 남양주 송촌에서 은거하실 때 자주 올라 스님과 대화를 나누던 곳입니다.

이 기 순

- 아호 낭산(浪山). 좌의정공종회 화수회장.
- 한국작가회의 회원, 풀무문학 고문.
- 저서-「강물처럼」(시집)
- 「문화유산 탐방기」
- 「독서 평가록」
- 「문학의 고향을 찾아서」
- 「한국문학순례 대표36」
- 「내 나라 내 땅」등.

둔촌선생 명시선 56

杏村病中書事
행 촌 병 중 서 사

貧居非舊隱送老此江邊謨食求田遠爲家度
빈 거 비 구 은 송 로 차 강 변 모 식 구 전 원 위 가 도

地偏納凉依樹坐避雨擁簑眠但喜農談好禾
지 편 납 량 의 수 좌 피 우 옹 사 면 단 희 농 담 호 화

麻勝去年
마 승 거 년

행촌에서 병을 앓으며 느낀바를 적다

가난한 살림은 옛 은거(隱居) 아닌데,
이 강가에서 늙음을 보내게 되었구나.
먹고 살려니 먼 곳까지 밭을 구했고,
집을 지으려니 비탈진 땅을 골랐네.
더위를 식히려고 나무에 기데 앉았고,
비를 피하느라 도롱이 쓰고 자노라.
농사 소식 좋은게 제일 즐겁나니,
벼농사 삼농사 작년보다 낫다네.

보학용어 해설[23]

■ 법사(法司)와 형벌(刑罰) [2]

2. 형벌의 종류

각 법사(法司)에서 내리는 형벌(刑罰)은 중국 명(明)나라 법률을 모방하여 사(死) · 류(流) · 도(徒) · 장(杖) · 태형(笞刑)의 5종으로 하였는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태형(笞刑) : 극히 가벼운 죄인에게 작은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써 태(笞)는 10대 ~ 50대의 구분이 있다.
- 장형(杖刑) : 약간 가벼운 죄인에게 곤장(棍杖: 큰 매)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써, 장(杖)은 50대 ~ 100대의 구분이 있다.
- 도배형(徒配刑) : 약간 중한 죄인에게 일정한 지역에 도배(徒配)하거나 또는 군대에 동원시키는 형벌로써, 1년~3년의 구분이 있다.
- 유형(流刑) : 유배형
  (1) 유배(流配) :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벌로써 유적(流謫)이라고도 하며, 죄의 경중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이 있고, 귀양간 곳을 적소라고 한다.
  (2) 장유(杖流) : 죄인에게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병과(竝科)하는 형벌인데, 이를 장배(杖配)라고도 한다.
  (3) 찬축(竄逐) :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 쫓아낸다는 뜻인데, 이를 찬배(竄配)라고도 한다.
  (4) 안치(安置) : 죄인이 귀양간 곳에서 일정한 처소(處所)에 주거(住居)를 제한하는 형벌로써 흔히 왕족(王族)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에게 적용하였는데, 안치에는 다음 3가지의 종류가 있다.
  (가) 절도안치(絕島安置) : 죄가 중한 사람에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島)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
  (나)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가 약간 중한 사람에게 탱자나무의 가시 덤불로 둘러싸인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
  (다) 본향안치(本鄕安置) : 죄가 가벼운 사람에게 자기의 고향에다 귀양보내 연금(軟禁)시키는 것이다.
- 사형(死刑) :
  (1) 사사(賜死) : 중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하여금 사형(死刑)에 처할 때 우대하는 뜻에서 사약(死藥)을 내려 자살하게 하는 형벌이다.,
  (2) 주살(誅殺) : 죄인을 처벌하여 죽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3) 참형(斬刑) : 죄인의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인데, 이는 1894년(고종31)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칙령(勅令: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참형페지가 제도화 되어 사형은 교수형(絞首刑: 목을 줄에 메어 죽이는 형벌)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4) 능지처참(凌遲處斬) : 대역죄(大逆罪)를 범한 사람에게 행하는 최대 극형(最大極刑)으로, 범인을 일단 죽인후에 다시 그 시체의 머리와 두팔 · 두다리 · 몸통의 6개로 갈라(찢어)서 각지(各地)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보 이는 형벌인데,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 때에 특히 많았으며, 인조(仁祖) 때에는 엄금(嚴禁)했다 하나 실제로는 1894년(고종 31)에 폐지 되었다.
  (5) 부관참시(剖棺斬屍) : 이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가하는 극형(極刑) 으로써 무덤을 파헤치고 관(棺)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던 형벌인데, 이 악형(惡刑)은 연산군 때 성행(盛行)하였다.
  (6) 효시(梟示) : 이는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군중앞에 보임 으로써 일반 대중을 경계하던 형벌인데, 참형(斬刑)의 일종으로써 이를 효수(梟首)라고도 하며 이 형벌 역시 갑오경장 때 참형과 더불어 철폐 되었다.

이달의 明心寶鑑

益智書云 女有四德之譽 익지서운 녀유사덕지예
一曰婦德 二曰婦容 三曰婦言 일왈부덕 이왈부용 삼왈부언
四曰婦工也 사왈부공야
婦德者不必才名絶異 부덕자불필재명절이
婦容者不必顔色美麗 부용자불필안색미려
婦言者不必辯口利詞 부언자불필변구리사
婦工者不必技巧過人也 부공자불필기교과인야

[해설]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여자에게는 네 가지 덕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이요, 둘째는 부용이요, 셋째는 부언이요, 넷째는 부공이다. 부덕(婦德)이란 재주와 이름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올바라야 하며, 부용(婦容)이란 얼굴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며, 부언(婦言)이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도에 맞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며, 부공(婦工)이란 솜씨가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입맛에 맞게 만들고 청소와 세탁 등을 깨끗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부행편(婦行篇) 中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종회에서는 청소년 종인들(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조상님에 대한 숭조정신 함양을 위하여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 선조님 선영 참배와 보학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순례기간 : 2019년 8월20일 ~ 8월21일(2일간)
나. 대상지역 : 영천 시조묘, 하남 시조비묘, 성남 둔촌 및 청백리 선조님 묘소.
다. 신청기한 : 2019년 6월20일 까지.(신청장소 : 각 지파종회 사무실)
라. 기 타 : 본 순례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종회에서 제공합니다.

화수회 산악회 둔촌선조님 묘역 정화작업 실시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은 지난 5월26일(일) 회원 23명이 모여 둔촌선조님 생신제를 앞두고 선조님 묘역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둘씩 모인 회원들은 한낮 무더위를 피하여 작업을 마치기로 하고 성수총무가 새벽같이 준비한 작업도구를 들고 서둘러 묘역에 올라 천여평에 이르는 둔촌(휘 집), 사인공(휘 장손), 대사간공(휘 극규) 선조님 묘소와 주변에 대한 벌초와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11시 반경 작업을 완료하고 나무 그늘에 모여 단체 사진을 촬영한 회원들은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반주를 곁드린 삼겹살과 식사를 먹으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화작업에 사인공파 종회에서 10만원을 찬조해 주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

–재경화수회 산악회 총무 성수 記–

이달의 행사계획

1. 재경화수회 정기모임

- 일시 : 2019년 6월17일(월) 오후 6시30분
- 장소 : 대종회 지하회의실

※ 6시부터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2. 재경화수회 산악회 행사

- 일자 : 2019년 6월23일(일) 오전10시
- 장소 : 청계산

※ 모임장소 : 신분당산 청계산입구역 2번출구
(식사 및 간식 준비)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5월 구독 및 찬조			이창진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정재	30,000	광주광역시 동구
이준래	2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이종태	20,000	경상북도 안동시	이동수	10,000	경기도 광주시
이춘재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만환	2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용설	10,000	대전광역시 서구
이용균	30,000	전라북도 남원시	이득래	20,000	전라남도 나주시	이원환	20,000	경상북도 예천군
이종수	2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이재선	10,000	전남 보성군	이근원	20,000	충청북도 영동군
도정공종회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선래	20,000	경기도 남양주시	이정환	10,000	대구광역시 동구
이용정	10,000	서울 성북구	이종선	10,000	전라북도 전주시	이희재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용각	10,000	서울 성동구	이택재	2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용달	10,000	부산광역시 서구
이양재	10,000	서울 중랑구	이병국	10,000	전라남도 구례군	보광회 이종율 외 25명 26명 X 10,000 = 260,000원		
이충재	20,000	경상북도 문경시	이주명	20,000	세종특별자치시	이종국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용결	2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이종원	20,000	충청북도 음성군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9年 6月 1日
<제348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玉 載
編輯人 : 李 錫 演
主 幹 : 李 碩 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